CJ
DONORS CAMP
10 YEARS STORY
2015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 눔

CJ 나눔재단

꿈을 꾸는 아이들과 그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

CJ 도너스캠프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현 회장 I CJ나눔재단 출범사 I 2005.07.21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현 회장 I CJ그룹 경영워크숍 I 2011.12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운다

CJ 도너스캠프 사업구조

CJ도너스캠프는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운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꿈키움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기회 —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문화 만들기
공부방 지원 사업: 학업, 예체능, 견학, 방학캠프 등 교육제안서

건강한 성장 — 세상을 위한 꿈을 스스로 만드는 아이들을 키우는 문화 만들기
꿈키움교육: 꿈키움캠프, 꿈키움문화동아리, 꿈키움창의학교

즐거운 나눔 — 아이들의 꿈지기로서 모두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만들기
꿈키움모금캠페인, 지역나눔캠페인, 나눔봉사단

목차

08 꿈의 얼굴들
12 동등한 기회, 같은 꿈의 출발선 ‘공부방 지원’
22 건강한 성장,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 권리 ‘꿈키움교육’
38 즐거운 나눔, 꿈이 또 다른 꿈을 만드는 ‘나눔의 선순환’
55 CJ도너스캠프 10년의 발자취
56 숫자로 보는 CJ도너스캠프 10년의 성과
57 2015 CJ도너스캠프 1년간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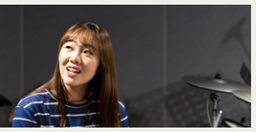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키우는 나눔에 앞장서는
CJ도너스캠프가 되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한 꿈을 건강하게 펼칠 수 있도록 2005년 7월, 우리 사회 모두가 아동·청소년의 ‘꿈지기’가 되는 즐거운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CJ도너스캠프 10년, 전국 4,300여 곳의 공부방과 32만 명의 기부자가 함께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47만여 개의 반짝이는 꿈을 마주했습니다.

공부방 교육 제안서와 문화예술동아리, 꿈키움창의학교 등 CJ도너스캠프의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꿈을 찾고 그 꿈을 오롯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난 10년의 의미 있는 발자취는 CJ도너스캠프의 가치와 철학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와 경의를 담아 〈2015년 CJ도너스캠프 사업보고서〉를 전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는 나눔’을 실천하는 CJ도너스캠프가 되겠습니다.

CJ도너스캠프 일동 올림



꿈키움창의학교 멘티로 참여한 장지수 님

CJ도너스캠프를 통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CJ도너스캠프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세요.
CJ도너스캠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멘티에서 멘토로, 나눔의 선순환에 동참한 최민수 님

CJ도너스캠프 덕분에 춤에 재능을 발견하고 무용수란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숨은 재능을 찾아줄 누군가를,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가 그들에게
나침반이 되고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공부방, 안양 한숲지역아동센터 정명운 센터장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방을 지원해주시는 CJ도너스캠프의 출범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CJ도너스캠프와 같은 밀착형 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능기부로 참여한 샘터사 김성구 대표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행복했습니다. 제게 그런 기회를 준 CJ도너스캠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CJ도너스캠프처럼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곳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동등한 기회,
같은 꿈의 출발선
‘공부방 지원’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이 꿈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지원해왔습니다.
배움의 시간을 통해 47만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꿈의 기회를 제공해온 CJ도너스캠프 공부방 지원의 10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꿈의 씨앗에 희망의 햇살을 드리우다
14p

동등한 배움의 기회로 학습 능력을 키우고
문화·예술 교육으로 감성을 어루만지다
18p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꿈의 씨앗에 희망의 햇살을 드리우다

안양 한숲지역아동센터 & 광주 자연친구공부방

CJ도너스캠프와 공부방의 아름다운 동행

안양 한숲지역아동센터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한 10년. 공부방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이뤄주고, 활발한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CJ도너스캠프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이 쑥쑥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명운 센터장

CJ도너스캠프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을 찾던 중에 우연히 CJ도너스캠프를 발견했어요. 보통 기부 프로그램은 사업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기부처를 모집하는데, CJ도너스캠프는 공부방 선생님이 올린 제안서를 통해 기부가 이뤄지더군요.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2005년 출범과 함께 가입했습니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교육 제안서를 꾸준히 올리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동센터를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아이들에겐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할 만한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 테마를 정하고 이에 따른 제안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교육 담당 자원봉사자와 재료비를 지원해주신 '식탁 위에서 발견한 과학'이 특별했어요. 오징어를 해부해 속을 관찰한 뒤 요리를 해먹고, 푸딩을 만들며 과학을 배우는 식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인데요. 요리로 과학을 배우다보니 아이들이 흥미를 느꼈고 그만큼 학습 효과도 좋았어요. 차량과 입장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 받아 3개월간 진행한 역사 여행도 기억에 남아요. 국사책에서만 보던 역사의 기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아이들에겐 큰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또한 올해로 6년째 이어지고 있는 CJ도너스클럽도 아이들에게 인기예요. CJ임직원 분들이 센터에 꾸준히 방문해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숲지역아동센터는 'Stage for you'와 꿈키움창의학교에도 참여하셨다고요?

'Stage for you'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을 계기로 저희 아동센터 아이들이 '한숲밴드'란 이름의 팀을 결성해 음악 활동을 시작했어요. CJ도너스캠프에서 음악 선생님을 지원해주셔서 '친구에게'라는 자작곡을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었고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꿈키움창의학교 멘티로 참여한 이예지 학생은 지금도 음악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부방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극 지원해주셔서 교육·문화 활동이 풍성해졌습니다. 공부방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교육도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지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돼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이를 벤치마킹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J도너스캠프와 공부방의 희망 더하기

광주 자연친구공부방

CJ도너스캠프와의 만남으로 공부방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Stage for you'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은 공부방 아이들의 잠재된 끼를 발산하고 감성을 키우는 의미 있는 기회였어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공부방을 향한 CJ도너스캠프의 '관심' 자체가 너무도 고맙습니다.

소선주 센터장

CJ도너스캠프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2005년 CJ도너스캠프가 출범했을 때 지역 내 공부방 선생님의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데다가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으려면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절차 또한 복잡했어요. 하지만 CJ도너스캠프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 지원을 비롯해 아이들의 인성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셨어요. 저희 공부방에서는 초등학생들이 'Stage for you' 1기, 3기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악기 구입비와 강사료를 지원 받아 운영을 시작한 우쿨렐레 수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우쿨렐레를 배우며 인성과 감성을 키울 수 있었지요. 연주 잘하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아이들 간의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리 도구와 재료비를 지원 받아 진행했던 영어 요리 학습이 기억에 남아요. 식재료를 통해 영어 단어를 배우고, 음식의 기원과 세계 요리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죠. 특히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하면서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평소 영어에 거부감이 있었던 아이들조차 수업을 손꼽아 기다렸을 정도예요.

꼭 한번 제안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에게 학습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선 인성 검사가 선행돼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사 참여형 인성 검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공부방 선생님들이에요. 공부방에서도 다중지능검사나 MBTI(심리유형검사) 정도는 충분히 진행 가능하고요. 외부 전문가와 데면데면한 관계 속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공부방 선생님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성 검사를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검사 용지를 지원하고 결과를 알려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공부방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악기 연주처럼 장기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3개월만으로 부족한 듯합니다. 적어도 1년은 지속돼야 원활한 연주가 가능하지요. 꼭 악기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도너스캠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공부방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CJ도너스캠프의 힘이 큽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약 300개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이 많은 만큼 지원 혜택도 골고루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동등한 배움의 기회로 학습 능력을 키우고 문화·예술 교육으로 감성을 어루만지다

CJ도너스캠프 공부방 지원 사업의 10년은 국내 공부방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꿈을 키울 수 없었던 아이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공부방 지원 사업의 출발

지난 90년대 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결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아동을 비롯해 노인과 노숙인 등에 이르기까지 결식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CJ그룹은 국내를 대표하는 식품 기업으로서, 결식 문제 해결에 집중해보자는 취지로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CJ그룹 사회공헌팀은 결식 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민간 복지기관인 공부방을 만났고, 초기에는 봉사자로 참여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방과 후 아이들의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많았다고 합니다.

CJ나눔재단은 CJ도너스캠프를 출범하면서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공부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CJ도너스캠프 공부방 지원 사업의 출발이었습니다. CJ나눔재단이 공부방 지원을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막 생겨날 시기였기 때문에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시작된 공부방 지원 사업의 10년은 국내 공부방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

공부방 지원 프로그램이 학습 위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그 이상입니다.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성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죠. 특히 다양한 진로를 개척, 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학습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과외와 같은 단순한 교과목 지도가 아니었기에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사업 초기에 비해 지금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지원은 단순 생활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아이들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중을 높였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공부방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만큼 교육 역량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부방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생활과 학습에서 출발해 복합적인 지원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

공부방 지원 사업에는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도 적당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참여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통로를 열어준 것이 CJ도너스캠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혜자인 아이들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도움을 주려고 참여했다가 오히려 내가 더 성장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흔히 봉사라고 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받는 사람을 돕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쌍방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수혜자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빛나는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사업의 성장

공부방 지원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할까요? 먼저 아이들 성장에 발맞춰 지속적인 지원의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원 프로그램 자체의 변화입니다. 사업이 10년간 지속됐음에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매년, 매 시즌 반복되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의적인 프로그램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CJ도너스캠프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대상이 물질이 아닌 사람인 만큼 단기적인 사업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고민과 장기적인 관점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공부방과 관련 기관의 탄탄한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을 잘 유지, 강화한다면 공부방 지원 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4,674개 함께하는 공부방

2005년 61곳으로 시작하여 2015년 4,674곳의 공부방이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나눔의 선순환

지난 10년 동안 공부방 지원 사업은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도 일회성 만남이 아닌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방 멘티에서 대학생 멘토가 되고, 멘토 활동 이후에 CJ그룹의 직원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나눔의 선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시점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는 좀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꿈은 곧 희망입니다. 저의 꿈은 아이들이 가정형편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장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CJ도너스캠프를 응원합니다.

저는 나눔의 선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시점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는 좀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건강한 성장,
무한한 꿈을 꿀 수 있는 권리
‘꿈키움교육’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과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올바른 인성과 다양한 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꿈키움교육에 앞장서 왔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만들어가는
꿈키움교육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꿈을 설계하고 아이들 스스로 미래를 그려나가다
26p

건강한 인성에서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꿈이 자라난다
30p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만나고
어울림 속에서 인성을 기르다
34p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

아동·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꿈키움교육은 멘토링 교육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꿈을 찾고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하며 응원했던 꿈의 멘토들이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무대에서만큼은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본인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해보세요. 훗날 한 무대에서 배우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남경읍 님(뮤지컬 배우)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꿈'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대견했습니다. 친구들만의 톡톡 튀는 감성과 생각들로 만든 무대 위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한혜연 님(스타일리스트)

실수와 실패를 기적으로 바꿀 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멋진 경쟁자들이 될 날을 기대할게요.

레이먼킴 님(셰프)

꿈을 꼭 미리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꿈은 충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꿈에 대한 의지를 갖고 꿈을 키워나가길 응원합니다.

이경미 님(영화감독)

아이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뛰어난 실력과 표현력을 겸비한 친구들이에요. 계속해서 열정을 다해 자신의 무대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정원영 님(가수)

함께이기에 가능한 친구들의 도전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어요. 작은 열정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길 응원해봅니다.

우지혜 님(CJ E&M 공연 제작기획1팀)

지금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추억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꾸준히 열정을 다해 꿈을 이뤄보세요!

강한별 님(CJ오쇼핑 SH운영파트)

자신의 꿈을 충분히 즐기고 시간에 상관없이 흠뻑 빠져서 열정을 다하는 멋진 사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훌륭한 후배로 성장해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이연복 님(셰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꿈을 키울 수 있는 경험, 순수하게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여러분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유미 님(CJ푸드빌 마케팅담당)

꿈을 설계하고 아이들 스스로 미래를 그려나가다

'꿈키움캠프 제주'에 참가한 오희숙 님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구사로 지내고 있다.

다양한 진로 탐색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기회의 장
꿈키움캠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5년간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하며 꿈키움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진로를 설계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프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제주도에는 총 45개 중학교가 있으며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캠프에 동참했습니다.

캠프 첫날, 참가 학생들이 처음 만난 사이여서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박 3일간 조별 활동을 하면서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첫날과 180도 달라진 표정들입니다.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이 가장 호감을 보인 부분은 대학생 멘토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참가 학생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인 만큼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교육 관계자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창업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CJ그룹에서 운영하는 '비비고', '뚜레쥬르', '올리브영' 등을 자신이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창업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진로 탐색과 더불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꿈키움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입니다. 대기업과 교육청이 손잡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학생들은 수준 높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꿈키움캠프는 대학생 멘토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인 제 딸도 꿈키움캠프 대학생 멘토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면, 꿈키움캠프는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에너지원이 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CJ도너스캠프도 자유학기제 운영에 발맞춰 새로운 사회공헌사업을 모색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CJ그룹처럼 대기업들이 앞장선다면 청소년 교육 발전은 물론, 폭넓은 기회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꿈키움교육 역시 더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현재 꿈키움캠프는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단기 집중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로 찾아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예컨대, CJ그룹 계열사를 적극 활용해 직업별 임직원 강의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멘토가 되어 학생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익숙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느끼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교육 효과도 그만큼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교육은 핵심 역량에 맞춰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전히 입시 위주에 등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교육의 키워드는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창업가 정신'이라 표현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핵심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방송과 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습니다. 친구들끼리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찾는 중·고등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한데 대도시에 비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CJ도너스캠프에서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CJ도너스캠프와 협력해 전문성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CJ도너스캠프 역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꿈키움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낯선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진로 로드맵을 설정하며 눈에 띄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이 꿈키움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꿈키움교육을 통해 꿈을 꾸고 진로를 탐색하는 아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조직, 넓게는 국가에 유익함을 주는 인재로 발전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의 권유로 꿈키움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대학 입시만을 목표로 내달렸던 저에게 꿈키움캠프는 식견을 넓히고 마음을 위로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진지하게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꿈'을 안고 들어가 '나만의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2박 3일이었습니다.

꿈키움캠프 참여자 박시몬 학생

청소년들의 재능 발견
문화예술을 통한 건강한 성장,
꿈키움창의학교와 꿈키움M주니어

통계청이 2015년 4월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13~19세)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능력·소질 개발(35%)'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중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가장 만족하지 않는 항목으로 '소질·적성 개발(37.5%)'을 들었기 때문이죠. 즉 재능 및 적성을 찾을 기회를 주는 문화예술 교육이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은 능력 소질 개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대 연구 결과를 보면 '문화 창작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의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고취시키며, 소통과 협력 등 공동체성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꿈을 꾸고 찾을 수 있도록 CJ도너스캠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Stage for you'였습니다. 'Stage for you'는 2010년부터 시작해 공부방 어린이들의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연극, 뮤지컬, 댄스, 음악 등 동아리를 만들 경우 심사를 거쳐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2011년에는 가수 이소라 님이 콘서트 수익금을 기부했으며, 2012년에는 Mnet 〈슈퍼스타K 3〉 생방송 문자투표 수익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기부금 이외에도 음악강사, 악기 등 문화예술 교육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Stage for you'를 발전시켜 2013년 꿈키움창의학교를 론칭했습니다. 꿈키움창의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꿈과 인성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CJ그룹 전사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산업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멘토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대멘토, 대학생 멘토, 청소년 멘티들이 한 팀이 되어 서로를 응원하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이들을 모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멘토로 구성해 재능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멘토들에게는 멘티들을 교육하며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대멘토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참여 멘티 학생들에게 CJ인프라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교육의 기회를 적극 마련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꿈키움창의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야는 총 5개로, 음악·공연·요리·방송쇼핑·미디어입니다. 각 분야에 지원한 학생들은 멘토들로부터 5개월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가 꿈키움M주니어입니다. 꿈키움M주니어는 미래 대한민국 음악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꿈키움교육입니다. 2014년 6월 시작한 꿈키움M주니어는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대중음악 산업에 관심이 많은 꿈나무 40명을 선발, 3개월간 다양한 음악산업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꿈키움M주니어 프로그램은 음악산업에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을 현업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멘토들과 함께 창작곡을 직접 만들어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를 위해 CJ E&M 음악사업 부문의 현업 전문가와 음악연구소 강사들을 비롯, CJ문화재단 '튠업' 출신 뮤지션, 실용음악과 대학생 등이 합류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의 문화 인재들에게 창작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J도너스캠프는 CJ그룹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더욱 체계적인 문화예술을 앞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건강한 인성에서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꿈이 자라난다

김성구 님은 현재 샘터사 대표로
아우름 프로젝트의 시작을 함께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
인성교육의 나침반 아우름

인성(人性)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성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인간의 품성'을 뜻하는데 이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인성은 '애기애타(愛己愛他)'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이며, 또 하나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줄 안다'라는 뜻이죠. 인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어휘라 생각합니다.

인성을 잘 갖춘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일식집 주방장이 인성을 잘 갖춘 사람이라면 왼손잡이 손님이 왔을 때 제일 왼쪽 자리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결국 인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개인의 경쟁력을 만들어 내거든요. 이미 사회는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 비해 학교는 아직도 스펙을 쌓는 데에만 열중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지점이 우리 아우름 프로젝트의 출발점입니다. 인성이 바른 아이들로 키우려면 돌봄 주체인 부모님과 선생님 등이 어떤 방식으로 인성을 가르쳐야 하느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우름 도서〉는 아이들은 물론 기성세대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의 꿈을 물어볼 때 "넌 커서 뭐가 될래?"라고 묻고, 아이들도 "대통령이요"라고 답합니다. 꿈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기성세대들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잘 모르면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로부터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꿈을 빼앗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유아교육 책의 99%는 엄마를 위한 책입니다. 엄마가 먼저 변하고 행동해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어른들은 단지 기회를 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책은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먼저 읽었으면 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이 책 좋다는데 읽어봐라"라고 하는 것에 그친다면 읽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해요. 특히 이 책에는 필자들이 몸소 겪은 인생의 경험담이 있어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엄홍길 선생의 예를 들어 볼까요? 그는 총 38번 히말라야 등정을 시도했지만 오직 16번만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

CJ도너스캠프와 샘터가 공동기획한 아우름 시리즈

아우름(Aurum)은 다음 세대에 말을 거는 샘터의 인문·교양 시리즈입니다. 'Aurum'은 라틴어로 '빛나는 새벽'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감성과 지성에 빛나는 새벽을 여는 책을 만들어 갑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 앞 세대가 다음 세대를 껴안는 사랑을 담습니다. CJ도너스캠프와 샘터가 대한민국 청소년 인성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동 기획하였으며, 이 책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공부방 독서·동아리 지원에 쓰입니다.

에서 온몸으로 체험한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겠습니까? 읽는 내내 아이들이 혹은 부모나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필자들 선정에 있어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혹은 주변의 멘토나 친구 등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나간 사람들을 선별해 글을 청탁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짧고 쉽게, 재미있게 쓰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그런 면에서 아우름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인성교육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인성을 키우는 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썼으면 합니다. 건강한 인성이 꿈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게 되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01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생명 이야기 | 최재천

02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학에서 찾은 사랑해야 할 이유 | 장영희

03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옛이야기 속 집 떠난 소년들이 말하는 나 자신으로 살기 | 신동흔

04 인연이 모여 인생이 된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법 | 주철환

05 배움은 어리석을수록 좋다
수업론: 난관을 돌파하는 몸과 마음의 자세 | 우치다 타츠루

06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지리적 상상력 | 김이재

07 새로운 생각은 받아들이는 힘에서 온다
시인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표현하기 | 김용택

08 노력은 외롭지 않아
때론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 | 마스다 에이지

09 내가 읽은 책이 곧 나의 우주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책 읽기 | 장석주

10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등산과 하산의 기술 | 엄홍길

우리 아이들의 인성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몫, 꿈키움가족인성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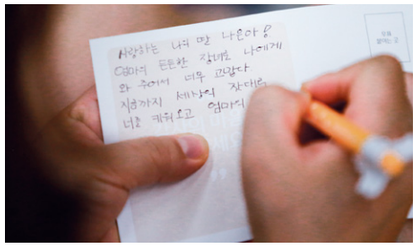
현장에 나가보면 그곳에서 원하는 인재는 이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기술은 와서 배워도 되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좋은 학교, 돈 많이 버는 직업만 찾는 잘못된 교육 문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자는 이를 '자기의 주파수 찾기'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주파수를 스스로 찾기 위해서는 돌봄 주체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콤플렉스를 '맵다'라는 개성으로 승화했다는 이야기죠. 부모들은 아이가 잘됐으면 하고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성장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CJ도너스캠프가 진행한 '꿈키움가족인성캠프'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많은 책에서 유아기 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모든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헝겊 원숭이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천으로 만든 곳과 철사가 있는 곳에 밥을 놓아두었더니 원숭이가 배가 고플 때는 힘들어도 철사 있는 곳으로 가는데, 위험할 때는 따뜻한 천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따뜻한 천이 바로 부모여야 합니다. 이 애착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CJ도너스캠프 꿈키움가족인성캠프가 나서서 행한 것입니다. 캠프에서 부모와 아이들에게 손을 잡게 했을 때 모두들 처음에는 망설이고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지요. 서로 마음속에서 원하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이 애착 관계의 회복이 인성교육의 시작입니다.

일례로 캠프에서 부모당과 아이당으로 나눠 '가족인성 모의국회'를 열어 가정 내 인성과 예절, 관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 서로 몰랐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 캠프 동안에 소원했던 부모와 아이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인성은 조금씩 자라났을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교과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효(孝)'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단박에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필자 사무실에 아이들이 편하게 상담하러 찾아오도록 소파 위에 인형을 놓아두었죠. 아이들이 "인형을 왜 놓아두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찾아와야 상담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마음 또한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 재미는 몸으로 하는 놀이여도 되고, 음악이어도 되며, 영화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재미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진로를 결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CJ도너스캠프의 프로그램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에서도 할 수 없는 역할을 CJ도너스캠프가 해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방승호 님은 현재 아현산업정보학교 교장으로 있다.

부모라면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갖추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예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민태와 승태가 올바른 인성, 사회성을 키워 비장애인들과 함께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몸과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었고, 또래 아이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민태와 승태가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아요.

꿈키움가족인성캠프 참여 가족 김경숙 어머니, 김민태 님, 김승태 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만나고 어울림 속에서 인성을 기르다

꿈키움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성교육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다양한 환경을 가진 또래들과 집단을 구성하고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진로 탐구로 꿈을 찾는 프로그램

CJ도너스캠프 꿈키움교육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CJ도너스캠프는 매년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인성과 진로 교육을 전부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렴했지요. 또한 전국 공부방 아이들을 대상으로 꿈을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직업이 매우 한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꿈키움교육은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적성을 찾고 진로를 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J그룹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식품을 비롯한 음악, 뮤지컬,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그램이 바로 꿈키움교육입니다. 각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과 현장에서 일하는 CJ그룹 임직원 그리고 최고 전문가를 프로그램에 매칭함으로써 지속적인 진로 탐구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꿈키움교육은 2박 3일 동안 합숙하며 적성 검사, 진로 탐색, 직업 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꿈키움캠프',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음악산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현업 전문가에게 배우는 '꿈키움M주니어' 그리고 CJ도너스캠프의 대표적 진로인성 멘토링 프로그램인 '꿈키움창의학교'가 있습니다. 꿈키움창의학교는 대멘토(외부 전문가, CJ임직원), 멘토(해당 전공 대학생), 멘티(공부방 중학생)로 구성된 체계적 시스템 아래 5개월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꿈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른 인성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꿈키움교육은 가장 현실적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자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또래 집단을 만나고 공동 작업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며, 앞으로 갖게 될 직업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꿈키움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성교육입니다. 꿈키움교육은 단순한 직업 체험과 이론에 머물지 않고 인성교육을 병행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향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더 좋은 학교, 더 주목받는 직업 선택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데 꿈키움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다양한 환경을 가진 또래들과 집단을 구성하고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예컨대 꿈키움M주니어는 음악산업에 기여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꿈과 가치관 형성을 돕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꿈키움M주니어를 10주간 참여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했다.

꿈키움교육으로 변화한 진로 성숙도와 인성

꿈키움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꿈키움M주니어 프로그램에 10주간 참여한 '참여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두 집단의 진로 성숙도 평가를 위해 5개 하위 영역(진로 선택에서의 확신성·관여성·현실 조화성, 진로 결정에서의 독립성·진로 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했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참여집단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이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했으며, 진로 선택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졌다고 스스로 인지했습니다. 또 자신의 욕구와 현실적인 조건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증가했습니다.

인성 측면에서도 참여집단은 책임감, 협동심, 배려심, 관용적 태도에서 증가 폭이 컸습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비롯해 열정적인 태도와 미래지향성,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노력을 지속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단기적인 개입만으로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후속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인성에 초점을 맞추되 어떤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다 깊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CJ도너스캠프 꿈키움M주니어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 결과 개요

출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인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성의 세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즉, 좋은 인성을 가진 인재란 사람다운 인재, 선도하는 인재, 성취하는 인재로 개념화하고, 각각의 인성을 구성하는 심리적 특성을 세 가지씩 포함시켰음.

Humanitarian
사람다운 인재

- C Cooperation
  친사회적 협동능력
- H Honor
  타인 신뢰 기반 의사소통
- A Acceptance
  타인 수용

Pioneer
선도하는 인재

- R Resilience
  회복탄력성
- A Attitude
  긍정적, 낙관적 태도
- C Creativity
  창의성

Achiever
성취하는 인재

- T Teamwork
  팀웍을 통한 문제해결
- E Effort
  끈기와 노력
- R Responsibility
  자기통제 및 자기 관리

꿈키움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

꿈이라는 것은 급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나에게 '꿈'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꿈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성취해가면서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은 인생의 가치와 철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키움교육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성과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높은 호응에 놀랐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CJ도너스캠프의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평가하면서 꿈키움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사회 곳곳에 생긴다면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꿈키움교육은 우리 사회를 바꾸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깊은 연구로 사업 발전을 모색할 때

여러분에게 꿈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목표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철학이 곧 꿈입니다. 살면서 이를 잘 다듬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깊이 있게 내면화해야겠지요.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내면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꿈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사회를 짊어질 사람이 지금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꿈키움교육과 같은 사업이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소외된 집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꿈키움교육은 계속해서 번창해야 합니다. 단,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무엇에 도움이 되었는지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CJ도너스캠프의 지난 10년이 사업 정착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프로그램 분석과 의미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더 효율적인 CJ도너스캠프가 되길 희망합니다.

꿈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됩니다.
꿈은 인생의 가치와 철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즐거운 나눔,
꿈이 또다른 꿈을 만드는
‘나눔의 선순환’

‘나눔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꿈을 찾은 아이들이 어엿하게 성장한 지금, 또 다른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멘토로, 선생님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0년이란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CJ도너스캠프 나눔의 선순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같은 꿈을 꾸며 함께하는 성장

44p

멘티에서 멘토로 나눔의 선순환

46p

미래의 주인공들이 들려주는 꿈의 이야기

50p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

나눔은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 이 땅 위에 꿈으로 자라났습니다.
수많은 기부자님들이 CJ도너스캠프를 통해 보내주신 작은 사랑이
13만 명의 아이들의 꿈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32만 명의 기부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재능 기부 김나운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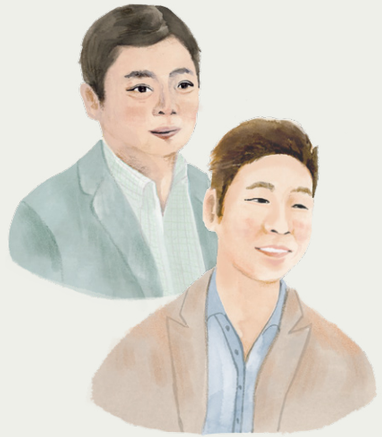
CJ도너스캠프와 CJ오쇼핑이 함께하는 모금 방송
〈사랑을 주문하세요〉에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할 때마다 원고도
몇 번씩 읽어보고 수정도 하고, 방송에 나오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구하곤 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방송을 해야만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팬클럽 기부 B1A4 & BANA

콘서트를 열게 되면 많은 팬 분들이 응원 화환을
보내주세요. 응원 화환도 감사하지만 팬들과 함께
뜻깊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콘서트 내 기부 부스를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고, 10대 팬 분들이 많다보니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이라면 부담 없이 쉽게
기부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기부 활동이 어느덧 B1A4 콘서트의
또 다른 문화가 되었네요. 매년 함께 해주고 있는
'BANA' 여러분 고마워요.

TOD'S 주세페 카발로 대표

토즈TOD'S는 매년 2회 전국 매장에서 Charity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객 분들께서는 전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행사 수익금 일부는 CJ도너스캠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명품은 소유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느낄 수 있지만, '나눔'이 더해질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Charity 행사로 따뜻한 사랑을 꾸준히 전해,
단순한 명품이 아닌 나눔의 가치를 아는 착한 명품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SCPE 김태엽·김태형 대표

기업이 어떤 지역에서 돈을 번다면 동시에 그 지역에 이익을 환원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CJ도너스캠프에 기부뿐만 아니라 임직원 봉사도
함께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그 가치가 확대되고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처장

전라남도 내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자 도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였어요. 특히 2013년에 CJ도너스캠프가
도민이 낸 기부금 액수와 같은 금액을 매칭하면서 모금액의 규모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행복 지수까지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특히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에게 꿈키움캠프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직접 탐색해보고 다양한 직업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가장 뿌듯합니다.

최고령 기부 차보석 할머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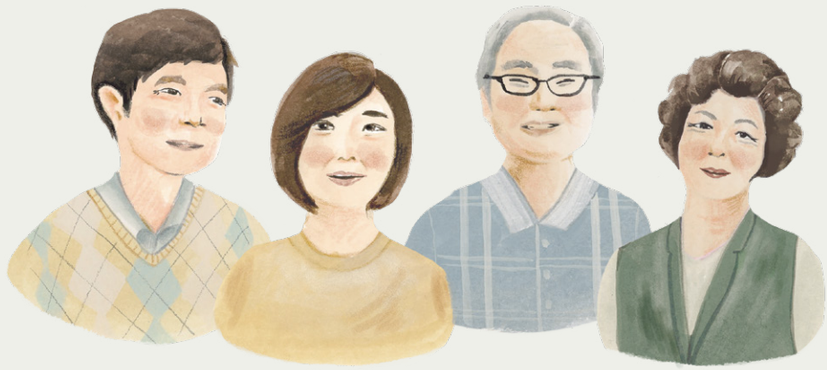
2007년에 우연히 TV에서 부모 없이 파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여학생을 봤는데, 밤에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에게 못해준 게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매달 1만 원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라나는 아이 한 명이
그 돈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제게는 충분합니다.

첫 월급 전액 기부 조형래 님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그걸 전부 기부하면 적어도 그 한 달만큼은
온전히 남을 위한 삶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기부하게 됐어요.
마음은 굉장히 좋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밥은 물론 회사에서 주었지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짜릿함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첫 월급을 기부했을 때 어떠했냐고 묻는다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감동을 준 CJ도너스캠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최장 기간 기부 송은정 님

나눔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10년 동안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부를 했어요. 자신을 축하하는데 돈을 쓰고 낭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돈을 보태서 기부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일이 생겨서 좋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으니
기분도 좋잖아요. 나눔은 기쁨을 두 배로 만드는 일 같아요.



온 가족 기부 김송원 님, 김종순 님, 안재영 님, 김성연 님 가족

딸로부터 내가 만 원을 내면 CJ도너스캠프에서 만 원을 보태서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취지라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걸 집사람이 보고 같이 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기부에
참여하게 됐지요. 저희 가족은 나눔이 ‘행복한 마음 곱하기 2’라고 생각해요. 나누는 사람은 하나지만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두 배 이상이 되기 때문이죠.

최연소 기부 박민지 님, 박철수 님

민지가 3살이 되던 2012년, 사직구장 어린이날 행사에 CJ도너스캠프를
보고 민지 이름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민지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부에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나누며 사는 삶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민지가 배워서 나중에는 스스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같은 꿈을 꾸며 함께하는 성장

정신혜 멘토 & 장지수 멘티

뮤지션의 길을 걷고 있는 정신혜 님과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열여덟 살 장지수 학생. 꿈키움창의학교에서 멘토와 멘티로 만난 두 사람은 음악 안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노래하는 두 사람은 오늘도 서로를 응원합니다.

정신혜 멘토

제25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동상 수상자이자 정가앙상블 '소울지기'에서 활동하는 정신혜 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재학 시절 그녀는 꿈키움창의학교 음악 부문 1~3기 멘토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음악을 포기할 뻔했는데 음악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가르침 덕에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었죠."

정신혜 멘토는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배우고 꿈을 키워가길 바랐어요. 그래서 이론과 기술에 집중하기보다 함께 노래하고 음악을 듣고 공연을 관람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지요. "음악을 향한 아이들의 순수와 진정성에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어도 시기와 질투 없이 화합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쌓이고, 음악으로 치유되는 아이들을 보며 정신혜 멘토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CJ나눔재단에서 지급된 멘토 장학금을 학비에 보태고 음악 장비도 구입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꿈키움창의학교는 꿈의 가치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신혜 멘토는 그 마음을 노랫말로 표현했습니다. '듣기만 하여도 벅차는 나의 꿈, 듣기만 하여도 벅차는 이 가슴은 영원하리'라고. 이 노랫말은 1~3기 멘티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스스로에게 전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장지수 멘티

열여덟 살 지수의 꿈은 뮤지컬 배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를 보고 현장감에 매료된 이후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수는 집안 형편 때문에 보습학원 한 번을 못 다닌 아이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딸의 꿈을 위해 보컬 학원을 등록해주셨죠. 지수는 엄마에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학원 수업에 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복지실 선생님을 통해 꿈키움창의학교를 알게 됐어요. 무료로 음악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꿈키움창의학교에 입학한 지수는 정신혜 멘토의 2기 멘티가 되어 음악 수업을 받았습니다. "음악 이론은 물론이고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었어요. CJ도너스캠프의 지원으로 뮤지컬도 많이 보았고요. 덕분에 귀가 활짝 열렸답니다."

지수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 친구들을 만나 행복했고, 꿈키움스테이지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무대 경험도 했습니다. "6개월간의 수업이 끝나고 정신혜 멘토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가정형편에 굴하지 말고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는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꿈키움창의학교를 통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는 지수는 오늘도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멘티에서 멘토로
나눔의 선순환

김마리 님, 임현준 님, 최민수 님

꿈키움캠프를 통해 요리사의 꿈을 키우던 제가 요리를 가르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꿈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꿈을 포기했다면 새로운 꿈을 꾸세요.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 김마리 님

김마리 님은 중학교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습니다. 요리가 좋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반대에 부딪혀 꿈을 접어야 했어요. 돈벌이도 안 되고 여자가 하기에 힘든 직업이라는 이유였지요. 특성화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더 이상 꿈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볼까?'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꺼졌던 꿈의 불씨가 되살아난 계기가 생겼습니다. 다니던 공부방의 제의로 꿈키움캠프에 참여한 것입니다.

"캠프 첫 날에 대학생 멘토님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리사의 꿈을 포기한 뒤로 꿈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음 날 프린트 한 뭉치를 주시더군요. 요리사란 직업이 무엇인지부터 국내외 음식 종류와 셰프 인터뷰 등을 정리한 자료였지요." 마리 님은 자료를 찬찬히 살펴본 뒤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멘토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마리 님은 꿈이 없어 방황했던 첫 날과 달리 둘째 날부터는 캠프가 너무나 즐거워졌습니다.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꿈이 생겨서, 자신의 꿈을 응원해 주는 이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마지막 날 베이커리 마스터의 강의를 듣고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직 너희에겐 시간이 많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해본 다음에 다른 일을 찾아도 늦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2박 3일간의 꿈키움 캠프를 마치고 마리 님은 엄마를 설득해 백석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에 진학해 요리의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에서 외식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베이커리와 파스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꿈키움캠프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꿈이 없거나 꿈을 포기했다면 용기를 북돋우고 싶었고요." 마리 님은 대학생 멘토가 되어 꿈키움 창의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요리에 관심 있거나 요리사를 꿈꾸는 저동중학교 학생들에게 요리 이론과 실기를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저동중학교까지 2시간이 걸렸고, 학과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교육을 위한 연구 과정도 스스로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멘티에서 멘토로 꿈키움교육에 참여한 마리 님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꿈을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꿈키움캠프를 통해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그때의 인연으로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의 사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CJ도너스캠프가 오래도록 지속 발전해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꿈은 혼자서 꿀 수도 있지만 응원의 힘이 더해지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으니까요."

대학생 멘토로 참여해 공부방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했던 제가 지금은 CJ그룹의 일원이자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세상은 행복과 기쁨으로 자라납니다. CJ도너스캠프와 함께 나눔으로써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CJ제일제당 실수요SU 임현준 님

CJ제일제당에서 근무하는 임현준 님은 대학 시절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영문학과 4학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꿈키움 대학생 멘토 모집 공고를 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는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한 터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더욱이 평소 선망하던 CJ그룹의 사회공헌사업이어서 적극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꿈키움 멘토단이 된 현준 님은 한마음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과목을 지도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총 15명을 담당했지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친 경험도 없고, 한두 명도 아닌 여럿을 가르쳐야 했기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데 학습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고민은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학습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이들과의 교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결론은 솔직함으로 다가가자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평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서 아이들이 안고 있을 고민과 어려움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현준 님은 학습하는 시간만큼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했습니다. '~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대화 말미에는 언제나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현준 님이 보기에 아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졌는데도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지도해줄 어른이 없어 방황하는 듯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진로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영어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선 자세한 학습 방법과 자신의 필기 노트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이들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장난을 치고, 고민을 털어놓는가 하면 영어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에 현준 님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눔을 통해 자신이, 그리고 아이들이 힐링되는 느낌도 받았지요.

"공부방 멘토로 활동하는 동안 오히려 제가 얻어가는 것이 많았어요. 좀 더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고, 봉사와 기부에 대한 인식이 전환했고요. 이전까지는 어렵게만 생각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CJ도너스캠프의 멘토 장학금이 생활의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한편 멘토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CJ임직원들을 통해 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한 그는 졸업 후 CJ그룹에 입사했습니다.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멘토로 시작한 나눔의 실천은 CJ도너스캠프 정기기부와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 'Stage for you' 문화예술동아리 덕에 무용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던 제가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춤을 사랑하고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좋은 멘토가 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최민수 님

최민수 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오로지 춤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의 관심사가 오직 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 님은 어릴 적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방송댄스, 힙합, 비보잉, 재즈 등 장르 구분 없이 춤이라면 무조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춤을 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댄스 학원에 다닐 만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고, 춤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으니까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최고의 무용수를 꿈꾸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공부방과 CJ도너스캠프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공부방 원장님이 '너는 무엇이 하고 싶니?'라고 묻기에 '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테니 함께할 친구들을 모아보라고 하셨어요. 그토록 원하던 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민수 님은 춤에 관심 있는 공부방 친구들 9명을 불러모았고, 모임이 형성되자마자 댄스 아카데미에서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Stage for you' 1기 댄스 동아리 활동은 시작됐어요.

"선생님의 권유로 중학교 3학년 말부터 현대무용을 시작했습니다. 현대무용은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 있는 춤이어서 흠뻑 빠져들었어요. 무엇보다 춤을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낮부터 밤 늦게까지 춤 연습을 하는데도 지치는 줄 몰랐어요." 민수 님은 남들보다 늦게 무용을 시작한 만큼 곱절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수시 전형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CJ도너스캠프 장학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던 민수 님은 나눔의 기쁨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CJ도너스캠프의 제안으로 꿈키움창의학교 3기 뮤지컬 부문 멘토로 활동했어요. 성남동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용학과 연기 등을 가르쳤습니다. 애들을 지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저의 옛 모습이 떠올라 더욱 열심히 가르쳤어요.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자세도 진지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 역시 성장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잠재된 꿈을 키울 수 있었던 최민수 님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에 보답하는 길은 꿈의 날개를 활짝 펼치는 '무용수 최민수'의 모습인 까닭입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들려주는 꿈의 이야기

CJ도너스캠프와 함께 성장한 7명의 주인공

10년 전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찾고,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후 꿈을 찾은 아이들이 훌쩍 성장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씩 꿈을 키워가며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나가는 7명의 미래 주역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떨까?
내 꿈은 수의사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다면
나는 꼭 내 미래를 볼 것이다.
만약 내가 거지, 건달, 백수 등이 되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 미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CJ도너스캠프 꿈키움문예집 중 박효빈 아동작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축구왕 슛돌이〉를 보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4학년 때는 〈피구왕 통키〉를 보며 피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발표 수업을 하면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성직자가 되고 싶기도 했다가
성우나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다.
아, 씨름 선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 꿈들은 모두 현재에 충실한 꿈들이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꿈 이야기 덕분에 예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나의 꿈 뭉치를 다시금 찾아낸 기분이 들었다.
〈CJ도너스캠프 꿈키움문예집 중 황휘 취재원 글〉

CJ도너스캠프 꿈키움문예집에 실린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꿈을 찾고 키워나간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저마다 입장과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CJ도너스캠프'를 통해 꿈을 찾고, 나누며,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2014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꼴찌였습니다.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6년 내리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지요. 학교 성적은 1위를 고집하면서 행복 지수는 내내 꼴찌여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꿈꾸는 것을 했을 때 행복하다는 아이들을 위해 CJ도너스캠프는 지난 10년 동안 꿈과 행복을 아이들에게 찾아주고 키워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훌쩍 성장해 사회로 나아가 자신의 꿈을 펼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누는 삶을 고민하여 성장한 친구부터, 세계적인 셰프를 꿈꾸는 친구까지 저마다의 찬란한 꿈을 펼치며 그 꿈은 아주 튼튼하고 단단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름 詩 작가'가 된 고석균 님

CJ도너스캠프 꿈키움캠프에 참가했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때 얻었던 자신감으로 현재 저는
'고석균 이름 삼행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청·추운100서〉라는 책을 발간할 예정이예요.
꿈을 이룬 셈이죠. 학교다닐 때는 진로 시간이
꿈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자습시간 혹은 진로
검사하는 시간이었는데, 만약 캠프에 가지 않았다면
현재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꿈의 정의를 알려준 CJ도너스캠프 고마워요!

나누는 삶을 고민하는 정예지 님

전공이 아동학과인 만큼 평소에도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해오던 차
2012년 CJ도너스캠프의 ESST에
지원을 하게 된 2014년까지
영어 멘토로 활동했어요.
CJ도너스캠프에서 참여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교내 'SNUCSR NETWORK'이라는
학술연구동아리에 가입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저 자신을 보며,
CJ도너스캠프의 가치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새내기 사회복지사가 된 임영진 님

제게 CJ도너스캠프는 멘토가 아닐까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회복지사 말고는 꿈을 꿔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남자로서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CJ도너스캠프 서포터즈로
참여하면서 같은 고민이 있는 서포터즈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의 나태함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이 사회복지사의 꿈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 전 새내기 사회복지사랍니다.

한국 무용가를 꿈꾸는 최소영 님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CJ도너스캠프 꿈키움캠프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흥미가 있는 분야가 무용이었는데 선뜻 결정 내리지 못했었죠.
그런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무용에 대해 스스로 더 알아보고, 중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CJ도너스캠프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세무사를 꿈꾸는 장유리 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권유로 갔던 공부방에서 CJ도너스캠프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겪어보지 못한 도움과
관심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CJ도너스캠프가 제게 키다리아저씨와 같은 존재예요. 세무사라는
꿈을 찾게 된 것도 소중했지만 무엇보다 나눔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저도 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실력파 뮤지션을 꿈꾸는 김지수 님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 전기를
공부하면서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의
시기를 보내던 중, 공부방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CJ도너스캠프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제가 음악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밴드부
활동을 경력 삼아 'Stage for you'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짜릿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실력파 뮤지션을
꿈꾸기 시작했고,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했어요. 꿈의 발판이 되어준
CJ도너스캠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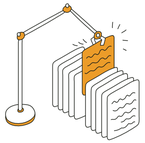
세계적 셰프를 꿈꾸는 오경택 님

학교에서 멘토를 뽑는다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창의학교의 멘토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20살 때 꿈을 찾은 저보다 좀 더 빨리 꿈을
찾기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멘토였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과 공통의 관심사로 교류하고, 지도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기도 했어요. 셰프님들이 직접 강의하는 특강에 참여했는데
그 경험은 멘티와 멘토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저에게 꿈의 멘토 역할을 해주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부자들의 공간,
CJ 도너스캠프로 오세요!

첫 번째

CJ도너스캠프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donorscamp.org



두 번째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에서 '공부방 지원' 메뉴를 클릭한 다음,
'교육 제안서'에 들어가주세요. 희망하시는 '제안서'를 클릭하신 후
'기부하기'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

기부자님의 간단한 정보와 함께 기부하시고자 하는 금액인
'기부 금액'을 입력하시고 회원으로 기부하실지, 비회원으로
기부하실지 선택하시면 빠른 기부가 완료됩니다.

CJ도너스캠프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좀 더 쉽게 다양한 제안서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에 CJ도너스캠프가 응답할
차례인데요. CJ도너스캠프가 기부자님의 기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더해 두 배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아이들의 감사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
10년의 발자취

2005

CJ나눔재단 설립,
CJ도너스캠프 출범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고 경영자(이재현 회장)의 나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CJ나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온라인 기부 플랫폼 CJ도너스캠프를 출범했습니다.

2006

CJ도너스캠프, 개방형
온라인 모금 시스템 도입

기업 재단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쉽고 즐거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온라인 모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부자의 후원금에 CJ그룹이 같은 금액을 더해 공부방 기부금을 2배로 키우는 '매칭펀드' 시스템이 주요 특징입니다.

2007

CJ도너스캠프, 신뢰성을
높여 파트너십 확산

간편한 참여, 기부금의 뚜렷한 사용 목적,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성을 높여 타기업, 공공기관, 저명인사 등의 참여로 파트너십이 확산했습니다. 토즈 코리아, 한국관광공사, 동양생명을 비롯해 골프선수 최경주와 하정우, 고소영, 김나운, 이승기 등이 CJ도너스캠프 나눔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2008

CJ나눔재단,
대통령상 표창

CJ나눔재단이 나눔활동(푸드뱅크 기부, 전국 공부방 지원, CJ도너스캠프 운영을 통한 열린 나눔 문화 구축)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이웃돕기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2009

미래를 여는 나침반
'꿈키움캠프' 론칭

아동·청소년의 잠재된 능력을 발굴, 육성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꿈키움캠프'를 론칭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진로계발을 도왔습니다.

2010

문화예술동아리,
'Stage for you' 론칭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동아리 'Stage for you'와 CJ그룹 임직원 봉사단 'CJ도너스클럽'을 론칭했습니다. CJ도너스클럽은 공부방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인성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지원했습니다.

2011

국내 최초로
소셜 기부 론칭

댓글만으로 기부가 되는 소셜 기부를 국내 최초로 론칭하여 쉽고 즐거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2012

대학생 멘토 사업 시행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공부방에 대학생 멘토단 '꿈키움 멘토단'을 파견했습니다. 꿈키움 멘토단에는 공부방 출신 대학생이 참여해 나눔의 선순환을 실현했습니다.

2013

꿈키움창의학교 론칭

CJ그룹의 핵심 사업(요리, 음악, 공연, 방송쇼핑)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꿈키움창의학교'를 론칭했습니다.

2014

CJ그룹·CJ나눔재단
'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아동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

CJ도너스캠프 출범
10주년

CJ도너스캠프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키운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동등한 기회, 건강한 성장, 즐거운 나눔의 핵심 가치를 지속 실현하고 있습니다.

1999년 임직원 참여, 지속성, 비즈니스 연계를 원칙으로 시작된 CJ그룹 사회공헌 활동은 2005년 CJ나눔재단 설립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CJ도너스캠프를 출범하여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만들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J도너스캠프는 2009년 아동·청소년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꿈키움캠프와 2010년 문화예술동아리 'Stage for you', 임직원 봉사단 'CJ도너스클럽' 등을 론칭해 아이들이 꿈을 찾고,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대학생 멘토 사업 시행과 2013년 꿈키움창의학교를 통해 대표적인 진로인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한 CJ도너스캠프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꿈을 키우는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CJ도너스캠프 10년의 성과

2005-2015년 누적수

동등한 기회

10,811 건

교육제안서 수

CJ도너스캠프는 '공부방'을 통해 2005년 101건의 교육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5년 100배가 넘는 10,811건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22,043 명

학업지원 교육

122,043명 아이들에게 도서, 문제집, NIE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14,436 명

문화체험 교육

방학캠프와 견학으로 114,436명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126,379 명

예체능 교육

126,379명 아이들은 예체능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한 성장

5,025 명

꿈키움교육 지원 아동수

문화예술을 통한 진로인성교육 '꿈키움'을 통해 5,025명 아이들에게 건강한 꿈의 가치관을 선물했습니다.

1,011 건

지원프로그램 수

교복지원, 객석나눔, VIPS, 물품 후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310,070 포기

김장지원

CJ그룹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9,500여 개의 공부방에 김장배추 310,070포기를 담아 전달했습니다.

44,246 명

문화나눔

뮤지컬, 영화, 연극, 발레 등 225개의 공연을 44,246명의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즐거운 나눔

322,343 명

기부 회원

일반인부터 CJ임직원, 외국인 등 322,343명 회원들이 CJ도너스캠프와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23,092,863,329 원

기부금

CJ도너스캠프는 매칭펀드를 통해 총 23,092,863,329원의 기부금을 마련하여 아이들 꿈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40,000 시간

봉사시간

CJ 임직원은 재능기부와 봉사로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데 40,000시간 동안 함께해주셨습니다.

2015

CJ 도너스캠프 1년간의 이야기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잘한 일은 무엇인지,
후회되는 일은 없는지를 되짚어보며 말입니다.
2015년 CJ도너스캠프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부자들이 나눔을
보여주었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꿈을 찾고, 키워가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한 많은 이들이
전하는 나눔과 꿈의 이야기를 따라가봅니다.

1월

인성교육의 대표주자, 〈아우름〉 시리즈 발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샘터'와 함께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기획한 인문교양 시리즈 발간. 최재천, 姑장영희, 주철환, 엄홍길 등 사회명사 10인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했으며, 저자 특강과 아우름 인문학캠프를 연계해 진행했다.

—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등 다양한 추천도서로 지정

저자 특강 3회(2, 4, 7월 350명), 인문학캠프 1회(10월, 300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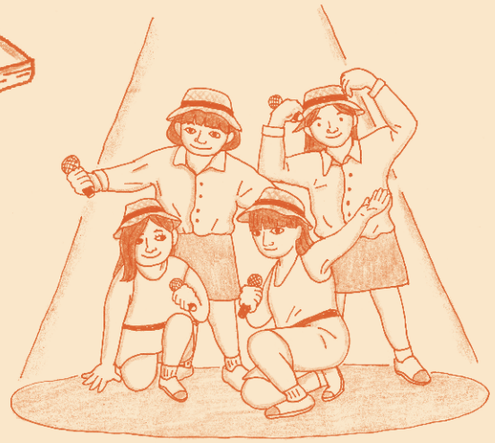
2월

꿈의 무대를 펼치다, 꿈키움 STAGE

꿈꾸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꿈키움창의학교'는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를 맞이했다. 요리, 음악, 뮤지컬, 방송 쇼핑, 미디어 부문에서 약 5개월간 체험 활동, 멘토링 수업을 진행했으며, 아이들이 '직접' 기획한 최종 무대 '꿈키움 STAGE'가 펼쳐졌다.

—

2015 2~3기 중학생 멘티 353명, 대학생 및 전문가(CJ임직원) 멘토 140명 참여.



3월

나도 디자이너, 꿈키움패션위크

'진로'와 '인성'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콘셉트로 진행되는 '꿈키움캠프'에서 '꿈키움패션위크'를 열었다. CJ도너스캠프의 특별한 기부자인 '토즈TOD'S'와 함께 '패션'을 주제로 패션 디자인, 제작, 모델 등 패션 산업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진행했다.

—

꿈키움캠프 참여 인원 820명

4월

꿈의 이야기를 담은 〈꿈키움문예집〉 출판기념회

10년의 나눔으로 성장한 아이들의 꿈, 가치관 등 마음속 이야기를 그림, 시, 일기 등으로 표현한 작품을 모아 2권의 책으로 출간. 아이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꼬마 작가 사인회'를 진행했다.

—

200개의 아동 작품이 담긴 꿈키움문예집 6,000세트 제작, 작품을 활용한 에코백 500개 제작, CGV 골드클래스 12곳에 〈꿈키움문예집〉 배치 등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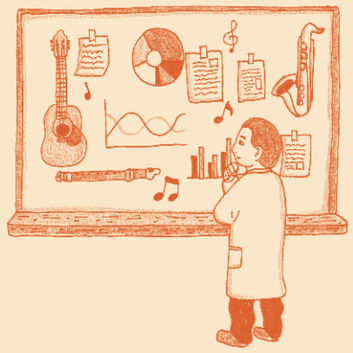
CJ도너스캠프 10주년 성장 스토리 발표회

10주년을 맞아 기부자와 공부방 선생님, 아이들 1,000여 명을 초청하여 성장·감동 스토리를 나누고, CJ계열사 문화체험존을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성장 스토리 발표회'가 열렸다.

6월

꿈을 연구하는 시간, CJ도너스캠프 학술연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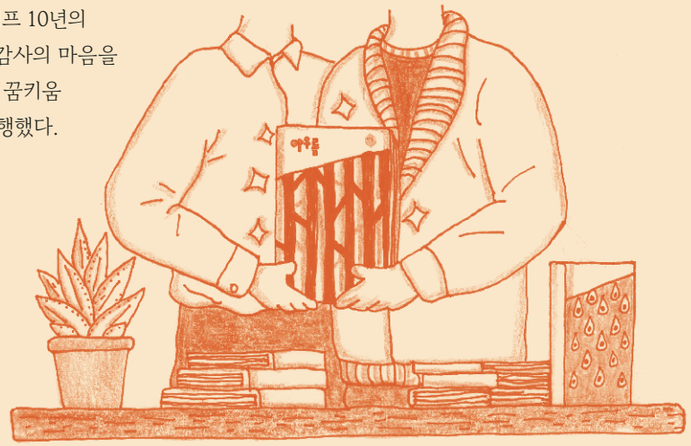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꿈키움M주니어' 프로그램이 진로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학계에 발표했다. 그 외 한국비영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등과 함께 다양한 성과 연구를 하여 전문 학회 발표 및 학술지에 게재했다.



7월

CJ도너스캠프 올해로 10살이 되었어요!

2015년 7월 21일 CJ도너스캠프 탄생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CJ도너스캠프 10년의 성장, 발전을 함께 해주신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우름〉도서를 전달했다. 또한 CJ 꿈키움 진로인성교육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8월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한 CJ계열사의 즐거운 나눔

CJ계열사와 함께하는 CJ도너스캠프만의 특별한 나눔이 펼쳐졌다. CJ푸드빌 착한빵 나눔, CJ CGV 객석나눔, CJ오쇼핑 모금 방송 '사랑을 주문하세요'뿐만 아니라 CJ E&M 콘서트 나눔 부스와 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한 공익캠페인을 진행했다.

—

CJ푸드빌 착한빵 108개 공부방,
36,000명 아동 간식 지원

CJ CGV 객석나눔 492개 공부방,
11,373명 아동 영화 관람 지원

9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캠페인

전라남도와 인천광역시에서 지역 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캠페인 '지역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

—

전남나눔캠페인 전라남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 주관
(6.5억 후원, 꿈키움캠프 400명 지원)

인천나눔캠페인 인천광역시 공동 주관
(2.7억 후원, 교육 프로그램 121건 및 꿈키움캠프 200명 지원)

10월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 새롭게 탄생했어요!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꿈키움교육 사업 스토리 페이지 신설과 SNS 공유 기능을 구축했다. IT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부자들의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한 홈페이지로 리뉴얼했다.

—

2015년 WEB AWARD KOREA의 공공분야 대상 수상

11월

CJ임직원과 함께하는 공부방 김장봉사

2007년부터 진행해 온 CJ그룹 임직원 자원봉사 '김장봉사' 활동을 올해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공부방에 찾아가 함께 진행됐다. 그 외에도 제주 지역 공부방과 연계한 신입사원 자원봉사활동[연 2회 진행]과 하계 DIY 가구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다.

—

김장 봉사 참여 임직원 2,200명, 공부방 283개 방문
전국 1,860개 공부방에 김장 지원(5만 포기, 56,000명 아동 지원)

12월

진로·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부 MOU 체결

교육부 MOU 체결을 통한 CJ그룹의 진로인성교육 강화 기점을 마련했다.

CJ도너스캠프가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즐거움을 주는 터전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회장 I CJ나눔재단 출범사 I 2005.07.21

CJ는 나눔 3원칙, '지속성, 임직원 참여, 비즈니스 연계'를 꾸준히 지켜나갑니다

이재현 회장 I CJ나눔재단 5주년 기념식 I 2010.07.21

2015 사업보고서
CJ도너스캠프 10년 이야기

발행일	2016년 2월 4일
발행처	CJ나눔재단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12 CJ빌딩 9F
전화번호	1899-4334
홈페이지	www.donorscamp.org
블로그	blog.donorscamp.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cjdonorscamp
기획·디자인	안그라픽스 디자인사업부
사진	장호, 황인창
그림	민지홍, 김은주

CJ WELFARE FOUND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12 CJ나눔재단